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9월은 CLC-USA 전역에서 은총으로 가득한 모 임들, 전환들, 그리고 더 깊어진 헌신의 달이었 습니다. 이그니스 핵심팀 (Ignis Core Team)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구조를 다듬기 위해 주말 동 안 대면모임을 하며 성찰과 식별의 시간을 가졌 습니다. 우리는 Kim Pham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고, 전 세계 안전위원회 (Global Safeguarding Committee)의 지속적인 활동을 들어 올렸으며, 가정 사도직의 계속되는 동반에 감사드렸습니다. 공동체들은 우리 공동의 집을 향한 돌봄으로'창조시기(Season of Creation)'에 들어섰고, KCLC 시카고와 동한(Dong Hanh)은 활기찬 지역 모임들을 주최하여 연결과 사명을 길러냈습니다. 새로운 리더들을 환영하고 가을 총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협력, 영적 통합, 그 리고 성령의 고요한 움직임에 뿌리내렸습니다.

이 뉴스레터에서 다루는 내용:

지역, 국가 행사들과, 사도직 소식, 단체별 행사 관련 기사들

다가오는 행사들



세계화와 빈곤팀

유리는 프론티어 주제들 — 평화, 인간의 존엄, 인종, 이주, 그리고 가난 — 에 이끌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생각들을 간단히 나눌 것입니다.

9월

15

2025 8:00 PM ET



미국 북서부 지역 피정

북서 지역의 연례 피정이 오리건 주이글 크릭 Alton Collins 피정 센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図 Sarah Owens 또는
info@clc-usa.com 으로 연락
주십시오.

10월

3-5

2025



세계화와 빈곤팀

월례 온라인 기도 모임 우리는 평화, 인간의 존엄, 인종, 이주 와 가난이라는 프론티어 주제들의 인 도를 받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간단히 나눌 것입니다. 10월

20

2025 8:00 PM ET

MKIM PHAM을 위한 기도

미주리 지역 NCC 대표인 Kim Pham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Kim Pham은 최근 암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희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Kim을 위한 격려와 기도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GiveInKind** 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 <u>Together with Kim in Christ</u>

Kim과 그의 가족의 은총 안에서, 앞으로 그의 투병 여정에 관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 공간을 통해 모든 이가 Kim 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와 위로, 격려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8월 25일 Kitty Gray가 최근 Kim을 방문하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많이 쇠약해 있었지만, Kim은 은총과 따뜻함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엌 식탁에 함께 앉았는데, 그곳은 Kim에게 있어 성찰과 신앙의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Kim은 예수님의 수난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조용한 힘으로 '주님의 뜻이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또"PET 촬영 중 그는 푸른 옷을 입으시고 두 손을 내미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현존을 체험하는 은총을 받았으며, 이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은총의 표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암 진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빛을 발하였습니다. Kim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느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께 간절히 청하오니, 암과 싸우고 있는 저희 형제이며 섬기는 지도자 Kim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무르게 하소서. 또한 저희 벗들이 그를 주님 뜻 안에서 지지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소서. 그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는 자비로운 지혜와 통찰을 내려주소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 어머니, Kim을 당신의 사랑스러운 품에 안으시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이 힘든 시기에 위로와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세계화와 빈곤팀

요 온라인 기도 모임

매달 30분 동안 전국적으로 온라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평화, 인간 존엄성, 인종, 이주, 가난이라는 프론티어 주제들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에 담긴 나눔을 짧게 나누려 합니다.

일시: 매월 셋째 월요일 저녁 8시 (미 동부 기준)

<u>爾 다가오는 일정: 9월 15일 & 10월 20일</u>

참여 방법: Zoom 링크는 clc-usa.com/globalization-poverty 에 게시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 전국 지원 프로젝트: The Samaritan City

우리의 주거 불안 형제 자매들을 섬기도록 초대합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사도직은, 집이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지원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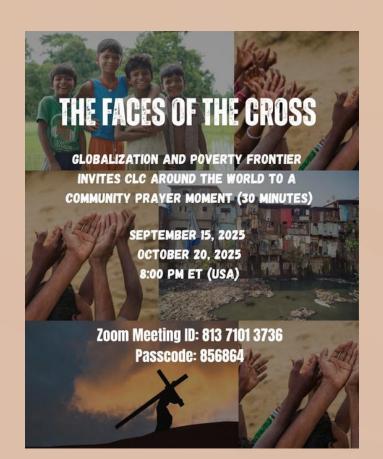
자세히 보기: 창립자의 이야기 영상 시청

☆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Murray Dalziel (동중부지역, 볼티모어)

murray.dalziel@gmail.com

○ 지역 NCC 회원 여러분

이 기도와 봉사의 기회를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십자가의 얼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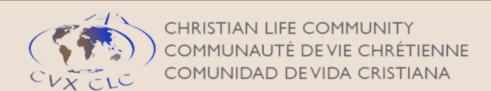
세계화와 빈곤 프론티어는 전 세계 CLC 가족을 30분간의 공동 기도 모임으로 초대합니다

> 2025년 9월 15일 2025년 10월 20일 오후 8시 (미국 동부시간)

Zoom 회의 ID: 813 7101 3736

Passcode: 856864

★ 세계 안전 위원회 첫 회의 개최



우리는 Lily De Leon이 새로 발족한 CVX-CLC 세계 안전 위원회(Global Safeguarding Committee) 미국 대표로 활동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알립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첫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공동체 안에서 안전과 돌봄을 위한 공동의 약속을 향해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이 국제 위원회는 아래 각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아프리카
- ◆ ∰아시아
- ◆ ❤️유럽
- (\$) 남미
- ◆ 💲 북미 영어권
- * ⑤북미 스페인어권 멕시코

위원회의 사명은 STANDING ORDER16 (SO 16): CVX-CLC-미성년자와 취약한 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히는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기도와 감사로 이어가며,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자비,책임, 그리고 성실함으로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창조 시기 2025:

"창조와 함께하는 평화"



매년 CLC는 전 세계 신앙인들과 함께 창조시기를 기념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지구와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고 창조의 외침에 응답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올해의 성경 주제는 이사야서 32장 14-18절입니다. 이는 황폐해진 도시와 무너진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며, **불의가 인간사회와 생태적 조화를 동시에 파괴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 창조는 평화를 찾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도와 실천, 변화와 화해**로 부르며, **창조와 창조주와의 일치**를 이루도록 이끕니다.

🖏 온라인 기회: 환경과 영성 정상회의

-2025 환경과 영성 정상회의

-주최: Faith in Place

-기조연설: Robin Wall Kimmerer

-일정: 2025년 9월29-30일 (온라인 개최)

-주제: **강하고 지지받는 (Strong and Supported)**

-주요 내용: 지구를 치유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세션

■ 전례와 통합을 위한 자료

• Season of Creation 2025: 창조 시기 2025

▶ Liturgical Guide: 전례 지침서: "창조와 함께하는 평화" (Jim Hug 신부, 예수회)

이번 창조 시기는 **영적 쇄신과 예언적 행동**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의 여정을, 발간 10주년을 맞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의식성찰을 가정에 도입하기 –녹화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가정에서 의식성찰을 기도 자료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셨습니까?

가정 프론티어와 이그니스 청년 사도직(Ignis Ministries) 회원들이 바로 이 질문을 깊이 다루기 위해 함께 모였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들이 지닌 영적·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연령에 맞게 세심하게 의식성찰을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감정의 성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그들은 가정이 일상에서 의식성찰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발표자들과 기술 지원 담당자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이 자신의 기도 생활을 더욱 깊게 해주었으며, 의식성찰이 각자의 가정에서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나누었습니다.

라이브 세션에 참석한 이들은 프로그램 내용이 유익하고 영감을 준다고 평가하며, 자녀양육과 기도, 그리고 가정에서 영적 성장을 키우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깊이 성찰할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본 세션 (1시간 20분):

어린이를 위한 **이냐시오 영성과 의식성찰** 소개 포함 내용:

- 유아에서 초등학교까지의 감정 및 영적 성장 개요
- 두 개의 소그룹 세션:
 - 유야~취학 전 아동 그룹
 - 6~11세 어린이 그룹
- 마무리 토론
 - 전체 녹화 보기: <u>Bringing the Examen to Families</u>

奇 청소년 소그룹 세션 (20분):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을 위한 별도의 세션으로, 연령별에 맞춘 의식성찰 실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시보기: Middle-High School Examen

₩ 자료 목록 제공:

가정에서 의식성찰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책, 영상, 음악, 예술 작품을 엄선하여 목록으로 준비했습니다.

복사본 요청: familyfrontier@clc-usa.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의식성찰이 가정에서 은총과 연대, 영적 깊이의 원천이 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향휴 세션들을 식별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성찰이나 건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공유해 주십시오!

★ KCLC 시카고: 침묵과 성령에 기반한 순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KCLC 시카고 공동체 회원들은 스페인 몬세라트에 모여 예수회 임 가브리엘 신부님의 지도 아래 침묵피정을 하였습니다. 성스러운 산자락에 자리한 이번 피정에서는 깊은 성찰과 영적 쇄신, 그리고 공동체적 침묵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피정 후, 참가자들은 **이냐시오 영성과 가톨릭 역사가 깃든 여러 성지를 순레**하는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순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루르드
- 로욜라
- 만레사
- 팜플로나
- 파티마

총 **25명의 순례자들**이 성 이냐시오의 생애와 각 성지에 깃든 신앙의 유산으로부터 영감을 얻으며 함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순례는 **기도와 동행, 그리고 깊은 은총**의 체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순례의 결실이 참가한 모두의 마음에 오래도록 영적 양식으로 남아, 각 공동체로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 동한 (DONG-HANH) 지역 모임 – 노동절 주말

노동절 주말 연휴에 **캐나다, 중서부 그리고 남서부 지역의 동한(Dong-Hanh) 그룹**들이 아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희망의 등대가 되어감"

우리는 기쁨에 넘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은총 가득하며, 축복과 동료애로 충만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이 모임은 성찰, 갱신 그리고 지역을 아우르는 결집의 장을 우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각 공동체의 빛이 우리를 희망과 사명으로 이끌어 가도록 계속 비추어 줄 것입니다.



* 중서부 지역

캐나다 →

* 남서부 지역

*등한(DONG HAHN) X 이그시스 청년 사도직 청년들의 활동 - 남서부와 중서부 지역

♣ 남서부 지역 – HMV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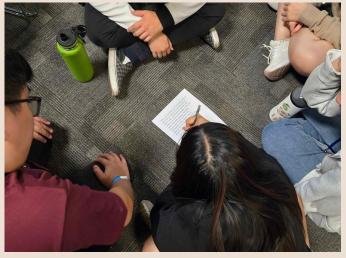
남서부 동한 그룹의 주최로 열린 이 모임은 아이들부터 가정을 이룬 젊은이들까지 30명 모여 활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

- 올리아 소공동체에서 8명의 회원 참여
- 갈릴리아 소공동체에서 2명의 회원 참여
 - 위의 언급된 두 그룹은 지난 3년 동안 이그니스 청년 사도직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 ◇ 이그니스 청년 사도직의 하이라이트:
- **CLC 카리즘**을 반영하기
- 원리와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수정하기
- 원리와 기초에 영감을 받은 CLC 광고 만들기
- CLC로 인해 변화된 삶이 담긴 이야기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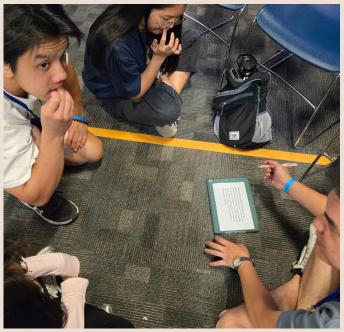
이번 연휴는 믿음, 창작, 친교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깊음 연대로 가득찼습니다.

-- Bethany Vu









**한 (Dong Hanh) X 이그니스 청년 사도직(Ignis Ministries)

청년 참여 – 남서부(Southwest) & 중서부(Midwest) 지역

🕉 중서부(Midwest) 지역 – 노동절(Labor Day) 주말

노동절 주말 동안, **동한(Dong Hanh) 중서부 지역에 15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은 동한(Dong Hanh)에 익숙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CLC 소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 이그니스 주관 청년 세션 주요 내용:

- 복음 말씀「엠마오로 가는 길(The Road to Emmaus)」을 통해 자신들의 **은총의 여정**을 성찰
- 자신들이 가장 끌림을 느끼는 지점과 **가장 큰** 지지와 포용을 갈망했었던 부분을 탐색
- 진솔한 나눔과 식별을 위한 공간 마련
- 다시 큰 공동체와 합류해 통찰과 희망을 함께 나눔
- 동한 (Dong Hanh) 전체 공동체의 반응은 따뜻하고 긍정적이었으며, 이는 소속감과 공동의 사명을 더욱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 John Tran









이그니스 청년 사도직 (Ignis Ministries)

미국 CLC를 섬기는 우리의 청년들

☀ 지난 해의 은총, 다가올 해의 굳건한 토대

지난달, 이그니스 핵심 팀(Ignis Core Team)은 연례 성찰과 기획 주말을 위해 대면으로 모였습니다. 예수회 소속 교회 보좌(Ecclesial Assistant) Manh Tran 신부님의 영적 동반과 함께, 우리는 기도, 식별, 그리고 깊은 경청의 흐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말은 은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지난 한 해의 위로를 헤아리고 다가올 성령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대면 모임에서 우리는:

- * 🔏 지난 한 해를 성찰하며 다음 걸음을 식별하고
- * ⋘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구조를 다듬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 * 📰 우리의 연간 프로그램을 성 이냐시오(Feast of St. Ignatius) 축일과 맞추었으며
- * 🕸 혼합형 리더십, 영적 통합, 그리고 시대적 응답성을 지닌 프로그램으로 확정했습니다.

🕰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변화

그동안 애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John Tran and Huy Nguyen 핵심 팀에서 물러남
- Timothy Nguyen 소공동체 형성 하위팀에서 사임

여러분의 리더십은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그니스를 위해 바치신 시간과 정성, 그리고 영성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정에서 다시 만납시다!

₩ 새로운 핵심 팀원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Jason Vu (동한 남서부 출신)
 Tess Lee (KCLC 출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두분의 여정을 기대합니다!







※성 이냐시오 보스톤 청년 CLC: 희망과 의지의 시편

성 이냐시오 보스톤 청년 CLC는 최근 함께 모여 의식성찰을 나누고, 한 해 동안의 희망과 꿈을 되새기며, 공동체 의식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그들의 비전에는 피정, 엠마오 걷기, 봉사 활동, 그리고 신앙과 우정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자유 기도를 하는 가운데, Nigel, Carmela, Johnny, Matthew, and Michel은 함께 **시편**을 썼고, 각자가 개인적으로 나눈 구절을 하나씩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힘, 신뢰, 정의, 그리고 찬양에 대한 감동적인 성찰이 이루어졌습니다.

> 오하느님. 당신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했던 힘을 주겠다." "네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감정을 준비시켜 주겠다. 너에게 닥칠 어떠한 어려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끌겠다." 주님, 제가 당신의 놀라운 방식들을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사실은 가까이 계심을 믿게 하소서.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박해받는 이들과 불의한 제도로 인해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계시어 그들에게 길을 보여 주시고.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제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깊이 성찰하며 의도적으로. 그리고 은총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십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견뎌낼 힘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큰 소리의 심벌즈를 울리며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아멘.

